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 전남 득량만, 충남 천수만 등 해역 적조 예비 특보 발표에 따른 위기대응 단계 돌입
-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적조 예찰 및 상황전파, 어장관리 지도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2일(금) 14시부터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

* 적조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발령기준 : 예비특보 2개 해역 이상 발생(혹은 적조주의보 1개 해역 이상)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8일(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8월 2일(금)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되어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적조 밀도: 충남(7.31, 차토널라) - 천수만(0~10개체/ml),

전남(8.2, 코클로디나움) - 득량만(50~300개체/ml), 여자만(0~0.5개체/ml),

가막만(0~0.2개체/ml), 전남 서부~동부 남해 앞바다(0.1~50개체/ml)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하여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을 활용하여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적조 의심 상황을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7월 31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I’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단계로 상향되어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양식어가에서도 사료 공급량 및 사육 밀도를 조절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심수빈 (044-200-5392)
			사무관	조효종 (044-200-5622)
	국립수산물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책임자	과 장	한인성 (051-720-2210)
		담당자	연구관	윤석현 (051-720-2240)
			연구사	박태규 (051-720-226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